

2015 / 09 / 30 (WED)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혼조세 . 엘런 Fed 의장이 메사추세츠대 연설에서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 시행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혼조 마감.

SK가 2% 이상 하락하며 IT서비스 업종이 약세를 보였지만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은 소폭 상승.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KTH, 더존비즈온, 한국정보인증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선데이토즈 약세.

종목별로는 신한은행 반대로 IHQ 매각이 무산되고 SK텔레콤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SK컴즈가 상한가 기록.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07.99	0.0%	-19.1%	-1,303 억	192 억
(코) 인터넷	20,528.95	1.3%	7.7%	40 억	-8 억
(코) IT S/W&SVC	2,278.02	0.9%	14.0%	74 억	-35 억
(코) 소프트웨어	337.21	1.5%	37.5%	4 억	-13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35.35	-0.7%	-7.9%
MSCI Internet	161.19	-1.1%	5.5%
MSCI IT Services	116.30	0.2%	-1.2%
MSCI Software	154.43	-0.3%	-5.6%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08,000	0.4%	-28.7%	-10 억	36 억
다음카카오	123,000	0.1%	-0.5%	39 억	-16 억
한국사이버결제	36,300	1.8%	36.0%	21 억	1 억
KG이니시스	20,400	1.0%	14.0%	4 억	4 억
KG모빌리언스	16,250	-0.3%	11.7%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4,650	0.8%	120.1%	-3 억	7 억
KTH	9,800	3.8%	28.1%	2 억	1 억
아프리카TV	32,050	1.4%	19.8%	8 억	-4 억
SK컴즈	9,580	30.0%	44.1%	-1 억	0 억
KT뮤직	6,080	-1.9%	12.8%	-2 억	-4 억
다날	10,000	-2.4%	23.5%	1 억	-
에스24	12,250	0.0%	75.8%	1 억	0 억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622.61	-0.3%	17.3%
Facebook	86.67	-2.8%	11.1%
Tencent	127.30	-2.8%	13.2%
Baidu	136.68	2.7%	-40.0%
Yahoo	28.26	2.4%	-44.1%
LinkedIn	186.61	-0.5%	-18.8%
Twitter	25.59	1.3%	-28.7%
Weibo	11.24	-0.9%	-21.1%
SINA	36.98	0.9%	-1.1%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76,500	0.0%	-5.8%	-15 억	19 억
SK	242,000	-2.2%	13.3%	-124 억	-227 억
다우기술	28,900	1.2%	141.8%	22 억	-24 억
포스코 ICT	5,530	0.4%	4.3%	2 억	0 억
신세계 I&C	154,000	1.7%	37.5%	2 억	3 억
동부	6,720	-0.4%	167.7%	0 억	0 억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42.47	0.0%	-11.2%
TCS	2,588.25	-0.2%	1.2%
Accenture	96.60	0.7%	8.2%
HP	24.65	0.3%	-38.6%
Infosys	1,121.85	1.5%	13.7%
Wipro	588.30	-0.8%	6.0%
NTT Data	5,850	-4.6%	29.6%
Fujitsu	517.20	-6.0%	-19.7%
CSC	59.81	-0.1%	-5.1%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39 억	SK	-124 억
컴투스	35 억	한국정보인증	-34 억
다우기술	22 억	엔씨소프트	-16 억
한국사이버결제	21 억	삼성에스디에	-15 억
NHN엔터	14 억	안랩	-12 억
웹젠	9 억	NAVER	-10 억
아프리카TV	8 억	SGA	-7 억
한글과컴퓨터	7 억	위메이드	-7 억
인피니트헬스	6 억	코나아이	-4 억
엑토소프트	5 억	라온시큐어	-4 억
KG이니시스	4 억	사람인에이치	-3 억
원스	4 억	에스넷	-3 억
유비케어	3 억	현대정보기술	-3 억
엔텔스	2 억	데브시스템즈	-2 억
포스코 ICT	2 억	KT뮤직	-2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0,500	0.5%	4.7%	-16 억	23 억
EA	115,700	2.1%	-4.0%	35 억	2 억
NHN엔터테인먼트	62,500	0.0%	-26.1%	14 억	-6 억
웹젠	31,050	-1.1%	6.9%	9 억	-2 억
위메이드	48,400	1.3%	28.0%	-7 억	6 억
선데이토즈	15,450	-2.5%	-10.2%	0 억	-12 억
엑토소프트	41,600	0.0%	24.2%	5 억	0 억
게임빌	69,400	-1.0%	-42.5%	-2 억	1 억
네오위즈게임즈	17,850	2.9%	-21.5%	0 억	0 억
넥슨지티	11,450	-1.3%	-10.2%	1 억	-1 억
데브시스템즈	29,350	0.9%	-38.5%	-2 억	-
조이시티	22,800	2.0%	12.9%	0 억	1 억
파티게임즈	56,000	-2.1%	115.0%	-2 억	-3 억
조이맥스	19,700	2.9%	-27.8%	1 억	-
한빛소프트	7,320	1.0%	26.4%	0 억	0 억
와이디온라인	7,450	6.6%	61.3%	-1 억	-

Games	close	1D	YTD
Nintendo	19,310	-3.9%	53.2%
EA	66.00	-0.7%	40.4%
Blizzard	30.66	-2.1%	52.2%
NEXON	1,539	-3.6%	36.8%
NAMCO	2,665	-4.2%	3.9%
King	13.27	1.3%	-13.6%
Konami	2,492	-3.7%	12.3%
Square Enix	2,878	-1.4%	14.8%
GungHo	353	-0.6%	-20.0%
DeNA	2,238	-1.7%	54.8%
Sega	1,152	-5.2%	-26.0%
Take-Two	27.97	-1.8%	-0.2%
Zynga	2.21	-3.9%	-16.9%
Ubisoft	17.96	-3.6%	18.4%
Gree	526	-5.1%	-27.3%
Changyou	17.55	1.2%	-35.9%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36 억	SK	-227 억
엔씨소프트	23 억	다우기술	-24 억
삼성에스디에	19 억	다음카카오	-16 억
더존비즈온	9 억	선데이토즈	-12 억
사람인에이치	7 억	한글과컴퓨터	-8 억
위메이드	6 억	NHN엔터	-6 억
아이크래프트	4 억	아프리카TV	-4 억
KG이니시스	4 억	KT뮤직	-4 억
레드비씨	3 억	벅스	-4 억
신세계 I&C	3 억	파티게임즈	-3 억
컴투스	2 억	자트리비엔티	-3 억
KTH	1 억	웹젠	-2 억
한국사이버결제	1 억	민앤지	-2 억
조이시티	1 억	인피니트헬스	-2 억
한국정보인증	1 억	원스	-2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43,300	3.3%	28.5%	-4 억	0 억
더존비즈온	21,300	3.1%	129.0%	-1 억	9 억
한글과컴퓨터	23,200	2.2%	14.9%	7 억	-8 억
골프존	85,500	1.8%	238.6%	1 억	0 억
안랩	42,700	-0.8%	18.6%	-12 억	-
한국정보인증	18,700	2.2%	438.1%	-34 억	1 억
슈프리카	22,350	-1.3%	-12.2%	0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6,360	-0.6%	134.7%	0 억	-
자트리비엔티	11,300	-3.8%	227.5%	-1 억	-3 억
MDS테크	25,400	-0.6%	22.7%	0 억	0 억
오상자이엘	12,250	-0.8%	-7.9%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10,150	12.2%	40.2%	6 억	-2 억
케이사인	3,525	2.3%	43.3%	1 억	-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3.44	0.3%	-6.5%
Oracle	35.51	0.2%	-21.0%
SAP	63.96	0.9%	-8.2%
EMC	23.13	-1.6%	-22.2%
Salesforce	68.38	-1.0%	15.3%
Adobe	79.83	-0.9%	9.8%
Vmware	77.41	0.4%	-6.2%
Intuit	86.83	0.7%	-5.8%
Syantec	19.35	-3.3%	-24.6%
CA	26.83	0.4%	-11.9%
Citrix	67.62	-2.4%	6.0%
Autodesk	45.24	-2.0%	-24.7%
Synopsys	45.96	-0.6%	5.7%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컴즈	4.5%	M&A

SK컴즈, SK텔레콤 자회사로, 신한은행 반대로 IHQ 매각 불발

‘네이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SK커뮤니케이션즈가 SK텔레콤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 SK플래닛은 이사회가 SK컴즈 지분(51.00%)을 콘텐츠 업체 IHQ에 넘기기로 하면서 대신 IHQ의 지분을 받아 2대 주주(28.50%)로 자리매김하기로 했지만, IHQ의 대주주인 케이블TV 방송사인 씨앤엠의 대주단(채권단) 중 하나인 신한은행이 이를 반대하면서 계약이 무산됨.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SK컴즈 지분 전량(64.5%)을 모회사인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했고, 24일 양사는 이사회를 열어 이를 결정.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00여 만주 중 2,650여 만주(61.08%, 약 1,954억원)를 주식 등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50여 만주(3.47%, 약 111억원)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에 이관할 계획.

SK컴즈 지분매각 실패로 SK텔레콤이 자회사로 떠안게 됐지만, 이를 통해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됨. SK컴즈로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지분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

SK텔레콤 측은 “SK컴즈가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 (Contents, Community, Commerce) 영역에서의 높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업계에서는 씨앤엠의 주요 채권단인 신한은행이 갑자기 IHQ의 컴즈 지분 매입을 반대한 이유에 주목. IHQ의 컴즈 지분 인수 당시 콘텐츠 회사인 IHQ와 인터넷 플랫폼 SK컴즈간 시너지를 높여 궁극적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씨앤엠의 매각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장상백 IHQ IR담당 상무는 “신한은행이 반대한 것은 아니고, 시점 상의 문제였다”면서 “저희는 씨앤엠 대주단의 동의를 받고 플래닛은 로엔 관련 사모펀드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SK그룹은 공정거래법 이슈로 24일 전에 이를 해결해야 했다”고 언급.

이어 “씨앤엠 대주단은 신한은행뿐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의사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면서 “반대라기 보다는 시간상의 문제였다”고 덧붙임. IHQ는 SK컴즈 지분 인수가 무산됐지만 네이트를 통한 이대호 선수 경기 중계 등 사업적인 시너지는 계속 찾아갈 예정.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한국사이버	1.8%	최근이슈

한국사이버결제, 텐페이(Weixin payment)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25일 전자결제 전문업체 한국사이버결제는 위챗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점에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ixin)’ 기반의 결제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힘. 한국사이버결제는 현재 위챗페이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결제 업체라고 설명.

업체 관계자는 “이는 기존에 단순히 위챗페이의 국내 가맹점 영업이나 시스템연동 등의 개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이버결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스템 연동에 덧붙여 정산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결제시스템을 한국사이버결제가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

위챗페이 온라인 결제는 국내 온라인 상점에서 중국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화면에 뜬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읽히고 위챗앱에서 상품정보를 확인후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는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손쉽게 위챗페이 결제를 할 수 있어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 고객 입장에서는 중국 내 위챗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내년 해외 역지구 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내 온라인 가맹점들이 중국 내 마케팅 수단으로 위챗페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들(면세점, 대형리조트, 명동/제주도를 비롯한 중국인대상 주요 관광지에서 영업중인 상점 등) 역시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의 국내 오프라인 소비와 관련해 위챗페이 오프라인 결제를 적극 도입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영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최근 한국사이버결제와 통합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판다코리아닷컴도 ‘중국 국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오프라인 위챗결제를 도입할 예정. 이를 통해 명동에 위치한 판다코리아닷컴 O2O 매장은 위챗페이 대한민국 1호 가맹점이 될 전망이다.

판다코리아닷컴은 지난 7월위챗페이를 비롯비자, 마스터, JCB, 은련 등 글로벌 브랜드 신용카드 및 위챗페이, 페이팔(PayPal)등 통합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맺은 상태. 판다코리아닷컴은 한국 최대 중화권 대상 온라인 직판 O2O쇼핑몰로 한국 기업 최초로 중국 정부 승인 전자상거래 수출입 기업으로 등록. 판다코리아닷컴은 이번 위챗페이 적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온-오프라인 통합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됨.

한편 위챗(Weixin, 微信)은 중국에서 SNS, 커뮤니케이션을 비롯, 택시예약, 쇼핑, 공과금납부, 게임, 연예인/오피니언리더의 공식계정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모바일앱. 2015년 6월기준으로 6억명의 사용자를 보유. 중국위챗유저는 위챗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계좌만 있으면 가능. 현재 중국에서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가맹점도 중국내 주요 도시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설명.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28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도입 촉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함.

이번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 클라우드가 우선 고려될 방침. 클라우드 발전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

우선 앞에 언급한 바대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며(법 제12조), 미래부장관은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됨(시행령 제9조).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법 제20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행령 제7조).

민간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클라우드의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세제지원의 근거(법 제10조)와, 각종 사업의 인·허가시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법 제21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도 법상에서 규정.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함. 사전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법 제23조 ~ 제37조, 시행령 제16조 ~ 제21조)

이밖에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정됨(법 제8조 ~ 제19조, 시행령 제7조 ~ 제15조). 미래부 측은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며, 10월 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토대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출범 8개월’ 협회장 평가 들어보니

출범 8개월째를 맞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단체로 올해 1월 29일 한국무선인터넷콘텐츠협회(MOCA)가 이름을 바꾼 조직. 주요 게임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달리 상당수 회원사가 10~20명 규모의 중소 모바일게임 업체들로 이뤄져 있고 회원사 수는 400여곳.

지난 1월 출범 이후 중국의 유명 휴대폰 제조사인 샤오미E&M와 MOU를 맺었고 1차 프로젝트로 국내 모바일게임 유료 패키지를 샤오미 앱 마켓에 등록. 이달 초엔 국내 첫 인디 게임사들을 위한 축제인 ‘빅 페스티벌’을 공동 주관.

황 협회장은 모계협회의 키워드로 ‘작은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현지 시장이 6조원 정도로 크지만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 그는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하다가 보면 RS(수익분배)에 결제수수료에 비용 보내주고 하면 (이익이) 되게 떨어지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인 저작권, 판호 등 그리고 내자법인이 아니면 서비스를 안 받게 하려고까지 하는 등 (중국 진출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현지 법인 설립과 중국 내 플랫폼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킷(SDK) 배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함.

황 협회장은 앞으로 VR산업협회와 교류를 통해 VR게임 제작 지원도 준비하겠단 계획. 그는 “관련 업체들의 클러스터를 구성해 중국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K-IDEA가 추진 중인 화물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선 황 협회장이 회원사들의 심정을 그대로 전함. 아무래도 소규모 업체들이고 직접 서비스보단 퍼블리셔에 게임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가 많따보니 자율규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게 그의 솔직한 답변.

소프트웨어 Soft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인피니트헬	12.2%	최근이슈

News & Issue

인피니트헬스케어, 삼성메디슨으로 피인수 기대감에 '급등'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삼성메디슨에 피인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세. 최근 삼성메디슨은 2020년까지 글로벌 진단 의료기기 기업을 목표로 신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주력. 이를 위해 적극적인 M&A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1997년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에서 분사한 업체로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한 이후 삼성 M&A 관련주로 꼽히고 있음.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코나아이	3.3%	최근이슈

News & Issue

코나아이, IC칩 매출 호조 기대감에 상승세

코나아이가 국내외 IC칩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에 상승세. 코나아이는 금융 스마트카드 종합 솔루션 업체로 스마트카드의 핵심기술인 IC칩을 자체 개발해 국내 1위와 미국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2017년까지 IC칩으로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견조한 실적 성장이 기대됨.

해외 매출 비중이 70.4%로 미주 및 중국향 매출 호조로 해외매출 비중은 지속 상승 중. 씨티은행, 웰스파고, 중국건설은행 등 400여곳의 은행이 주고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30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9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9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